

지속성 외래 복막투석 (CAPD) 환자에서 *Mycobacterium abscessus* 감염에 의한 복막염 1예

봉생병원 내과

김지환 · 손영기 · 오혜주 · 박용기 · 신용훈 · 전건웅 · 김종경

A Case of *Mycobacterium abscessus* Peritonitis on CAPD

Ji Hwan Kim, Young Ki Son, Hye Ju Oh, Yong Ki Park, Yong Hun Shin, Gun Ung Jeon, Joong Kyung Kim

Bong Seng Memorial Hospital

서 론 : CAPD 복막염은 CAPD 환자의 심각한 합병증 중의 하나이다. *Mycobacterium abscessus*는 비결핵 마이코박테리움이며 신속 발육 비결핵 마이코박테리움 범주에 포함되는 균종의 하나로서, 주로 자연상태의 물, 썩은 야채, 심지어 병원의 물탱크에도 존재한다. 그람양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항산균 염색에 양성을 나타내어 초기에 일반 세균 또는 결핵으로 오인하고 치료하기도 하나 잘 치료되지 않는다. 저자들은 말기신부전으로 복막투석을 시행하던 환자에서 복막염의 일반적인 경험적 항생제로 치료되지 않는 *Mycobacterium abscessus*에 의한 복막염을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 만성 사구체 신염에 의한 말기 신부전으로 12년 동안 복막투석 하던 43세 여자 환자가 심한 출구 감염으로 내원하여 기존 도관을 제거하고 반대편에 다시 복막투석 도관을 삽입수술을 하였다. 수술 후 12일째부터 복막투석을 재개하였으나 환자가 복통을 호소하고 투석액이 혼탁한 소견 보였다. 복막투석액 분석에서 백혈구수 $139/\text{mm}^3$ (호중구 93%, 림파구 7%)를 보여 복막염 진단하에 ciprofloxacin의 복강 내 주사로 치료를 시작하였다. 그람 염색에서는 그람 양성 간균 소견 보였으나 배양검사서 미생물이 자라지 않아 경험적 항생제로 계속 치료하였다. 그 후 호전되는 소견 보이지 않아 투석관을 제거하고 혈액투석으로 전환하였다. 혈액투석으로 전환 후에도 지속적인 복통과 함께 경화성 복막염 소견을 보였다. 최초에 균배양검사 나간 뒤 3주째에 항산균 배양검사서 균이 자라는 소견 보여 균동정을 의뢰하였고 *mycobacterium abscessus* 동정되어 clarithromycin 경구 투여 후 복통은 호전되어 현재 관찰 중이다.

결 론 : 지속성 외래 복막투석에 의한 복막염 환자에서 그람 염색에서 양성 소견을 보이더라도 일반적인 항생제 치료에도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 여러 가지 원인균을 생각할 수 있으나 반드시 항산균 배양검사 및 균동정을 끝까지 확인해야 하고 드문 경우지만 non-tuberculosis mycobacterium에 의한 감염도 염두해 두어야 한다.